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의안번호 1927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 활동결과 보 고 서

활동기간

2024. 10. 4~
2026. 6. 3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 활 동 결 과 보 고 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제출)함.

**2026. 6. 10.**

위 원 장 김 동 구
부위원장 권 요 안
위 원 강 태 창
위 원 김 대 중
위 원 김 만 기
위 원 김 명 지
위 원 김 이 재
위 원 서 난 이
위 원 이 병 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 목 차


**제1장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 1**

1.1. 구 성 목 적 ····· 2
1.2. 연 장 이 유 ····· 3
1.3. 구 성 경 과 ····· 4
1.4. 위 원 회 구 성 ····· 5
1.5. 활동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 ····· 6
1.6. 활 동 기 간 ····· 6
1.7. 중 점 활 동 방 향 ····· 6

**제2장 주 요 활 동 상 황 ····· 7**

2.1. 특 위 활 동 일 지 ····· 8
2.2. 회 의 개 최 ····· 11
2.3. 현 장 활 동 ····· 25
2.4. 기 고 문 ····· 27
2.5. 건 의 안 ····· 31
2.6. 조 례 안 ····· 35

**제3장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 39**

3.1. 특 위 활 동 성 과 ····· 40
3.2. 특위활동의 아쉬운점 ····· 42
3.3. 정 책 제 언 ····· 43
3.4. 맺 음 말 ····· 46

**제4장 부 록 ····· 49**

4.1. 전북특별자치도 업무보고(1차) ····· 51
4.2. 전북특별자치도 업무보고(2차) ····· 89
4.3. 전북특별자치도 업무보고(3차) ····· 149
4.4. 주요 일간지 보도내용 ····· 195

contents

제1장

#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1.1. 구성 목적 2

1.2. 연장 이유 3

1.3. 구성 경과 4

1.4. 위원회 구성 5

1.5. 활동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 6

1.6. 활동 기간 6

1.7. 중점 활동 방향 6

# 제1장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 1.1. 구성 목적

○ 정부는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에너지, 방위산업 등 첨단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고도의 기술·집약적 첨단전략산업의 경재력 강화 및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관련 산업을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내 유일 RE100 실현이 가능한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새만금에 유치하였고 25개에 달하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로부터 총 9조원의 투자유치(MOU)를 이끌었으며 관련 전후방 연관기업만도 70여 개사에 달하면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핵심 소재와 부품기업의 집적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또한, 지역의 강점인 그린바이오(농업·식품)에 이어 레드바이오(의료·제약)까지 바이오 영역을 확대하고 특히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오가노이드(장기 유사체) 중심의 레드바이오를 발전시켜 전북 산업생태계의 변화 및 강화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신성장동력 에너지인 수소에너지 및 반도체 산업, 방위산업 등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전북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고 실질적인 지역 균형을 구현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및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틀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경제 규모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1.2. 연장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수소에너지·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2024.9.10.) 결의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도의 정책 수립과 중앙정부 정책 반영 및 국책사업 유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왔음.

○ 그러나 새만금 국가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후속과제 발굴 및 타지역 이차전지 특화단지와의 차별화된 전략 수립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2025.6월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수소·방위산업·AI 등 첨단전략산업을 국가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미래산업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바,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러한 기회요인을 선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역할과 지원대책 강화가 절실히 요구됨.

○ 특히, 2025.7월 정부가 발표한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새만금 국가산단이 국내 유일의 RE100 실현에 최적의 입지로 평가되며 부각되고 있는바, 정부의 신속한 지정과 국가지원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 활동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국가 차원에서는 반도체·바이오·수소·방위산업·AI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첨단전략산업에 대해 △그린·레드바이오 융합 △수소에너지 실증단지 조성 △방위산업과 연계한 신성장산업 육성 △피지컬AI산업 육성·지원 등 지역 맞춤형 전략 추진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첨단전략산업 전반에 대한 후속 지원체계·제도적 기반 마련,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산·학·연·관 협력체계 확립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1.3. 구성 경과

○ 구성결의 : 김동구 의원 발의(2024. 07. 08.)
- 의안심사 : 제41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2024. 09. 03.)
- 발의의결 :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 09. 10.)

○ 위원선임 :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4. 10. 04.)

○ 연장발의 : 김동구 의원 등 7명 발의(2025. 08. 26.)

- 의안심사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2025. 09. 05.)
- 발의의결 :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5. 09. 17.)

○ 위원개선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제의(2025. 10. 16.)
- 발의의결 :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5. 10. 20.)

## 1.4. 위원회 구성

○ 위 원 수 : 9인(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7)

○ 위원명단

| 직 위 | 성 명 | 소 속 위 원 회 | 직 위 | 성 명 | 소 속 위 원 회 |
|---|---|---|---|---|---|
| 위원장 | 김 동 구 |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위 원 | 김 이 재 |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 부위원장 | 권 요 안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위 원 | 서 난 이 |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 위 원 | 강 태 창 | 기획행정위원회 | 위 원 | 이 병 도 |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 위 원 | 김 대 중 |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 | |
| 위 원 | 김 만 기 |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 | |
| 위 원 | 김 명 지 | 기획행정위원회 | | | |

※ 의원 사직 : 나인권 의원('26.3.1.), 이수진 의원('26.5.12.)

○ 활동지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김인식, 경제산업건설팀장: 우원제
- 직원(12): 담당직원 8, 속기사 1, 방송요원 1, 사진기사 1, ENG 1

○ 운영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27조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 1.5. 활동 대상기관 및 사무 범위

○ 기 관 : 국회, 중앙부처, 전북특별자치도

○ 분 야 : 첨단전략산업 관련 사무 일체

## 1.6. 활동 기간

○ 당초 활동기간 : 2024. 10. 4. ~ 2025. 10. 3.(위원 선임 후 1년)

○ **변경 활동기간 : 2024. 10. 4. ~ 2026. 6. 30.까지**

## 1.7. 중점 활동 방향

○ 중앙부처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 동향 파악

○ 첨단전략산업 분야별 타 지자체 추진상황 파악

○ 첨단전략산업 분야별 특화단지 지정 파급효과 분석

○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 활동

○ 정치권과 연대한 특화단지 지정 추진활동 전개

○ 타 지자체 동향 파악 및 언론 대응 등

○ 타 지자체 첨단전략산업 육성 우수사례 벤치마킹

○ 전북도 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지원

contents

제2장

# 주요 활동 상황


2.1. 특위 활동 일지 8

2.2. 회의 개최 11

2.3. 현장 활동 25

2.4. 기고문 27

2.5. 건의안 31

2.6. 조례안 35

# 제2장 주요 활동상황

## 2.1. 특위 활동 일지

### 《 특위 구성 》

○ 2024. 07. 08.: 김동구 의원 발의

○ 2024. 09. 03.: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통과
(제41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 2024. 09. 10.: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2024. 10. 04.: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11명)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025. 08. 26.: 김동구 의원 등 7명 발의(특위 활동기간 연장 결의)
- 발의 의원(김동구, 김만기, 이수진, 이병도, 임종명, 김이재, 서난이)

○ 2025. 09. 05.: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통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 2025. 09. 17.: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본회의 통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2025. 10. 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제의(위원 개선)
- 염영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김명지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2025. 10. 20.: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본회의 통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026. 03. 01.: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변동
- 나인권 의원(경제산업건설위원회) 사직

○ 2026. 05. 12.: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변동
- 이수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사직

## 《 회의 개최 》

○ 2024. 10. 08.: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2024. 12. 13.: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추진 관련 업무보고 청취(미래첨단산업국) 및 질의·답변

○ 2025. 02. 21.: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추진 관련 업무보고 청취 (미래첨단산업국, 기업유치지원실, 환경산림국, 전북TP) 및 질의·답변

○ 2025. 07. 24.: 특별위원회 토론회 개최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2026. 02. 06.: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추진 관련 업무보고 청취 (미래첨단산업국, 기업유치지원실, 환경산림국, 전북TP) 및 질의·답변

○ 2026. 06. 10.: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 현장 활동 》

○ 2025. 09.25.~26.: 특별위원회 선진지 벤치마킹

- 방문대상 :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옵티팜, 충북배터리산업지원센터
- 주요내용 : 타지자체 첨단전략산업 분야별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등

## 《 기고문 》

○ 2025. 09. 16.: 기고문(전북일보)
–‘청년이 떠나는 전북특별자치도, 이제는 첨단전략산업으로 답해야 한다’

## 《 건의안 》

○ 2025. 09. 05.: 국가 차원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조례안 》

○ 2025. 09. 17.:「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제정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2.2. 회의 개최

### 2.2.1. 제1차 회의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4. 10. 08.(화) 15:52~
○ 장 소 : 의회운영·특별위원회 회의실(3층)
○ 참석현황 : 11명
- 특위위원(11) : 김동구 위원장, 권요안 부위원장, 강태창 위원, 김대중 위원, 김만기 위원, 김이재 위원, 나인권 위원, 서난이 위원, 염영선 위원, 이병도 위원, 이수진 위원

○ 안 건
① 위원장 선임의 건 ② 부위원장 선임의 건
③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임의 건

#### Ⅰ 회의 내용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Ⅱ 회의 결과

○ 제1항 : 위원장 김동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 2) 선임
○ 제2항 : 부위원장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 2) 선임
○ 제3항 :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 2.2.2. 제2차 회의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4. 12. 13.(금) 16:14~
○ 장　　소 : 의회운영·특별위원회 회의실(3층)
○ 참석현황 : 19명
- 특위위원(10) : 김동구 위원장, 권요안 부위원장, 강태창 위원, 김대중 위원, 김만기 위원, 김이재 위원, 나인권 위원, 서난이 위원, 염영선 위원, 이병도 위원
- 집 행 부(8) : 오택림 미래첨단산업국장, 최재길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임선정 전환산업과장, 배주현 청정에너지수소과장, 윤세영 바이오방위산업과장, 정미화 디지털산업과장, 조광희 기업유치과장, 이현옥 생활환경과장
- 출연기관(1) :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 안　　건
① 특위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② 전북 첨단전략산업 지원 추진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 Ⅰ 회의 내용

○ 특위 활동계획(안) 채택

○ 전북 첨단전략산업 지원 추진 관련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 Ⅱ 질의 · 답변내용

**〈 김만기 위원 〉**

○ 디지털혁신 거점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후보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 현재 디지털혁신 거점 조성을 위한 추진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검토 중에 있음.

○ 미래채움 초중고 71개교 명단과 해당 학교에서 AI와 관계없이 소프트웨어 교육만 진행하는 것인지?

➡ 요청하신 71개교 명단은 별도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며, 교육 내용에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AI, IC, ICT 분야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 소프트웨어 강사 121명 양성 계획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 올해 약 130명의 강사가 양성되었으며, 남원에 구축 중인 미래채움센터가 다음 주 개소 예정임. 이 센터를 활용해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도내 초중고교에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할 계획임.

○ 디지털거버넌스 운영을 위해 확대 예정인 30개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기존 연구회 기관들과 중복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선발하는 것인지?

➡ 디지털혁신 협의체는 지역 및 중앙기관을 아우르는 별도의 협의체로 구축할 예정이며, 기존 빅데이터 연구회나 가명정보 협의체와는 별도의 성격을 가짐.

## 〈 강태창 위원 〉

○ 이차전지 폐수 처리 시 환경부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량의 97%를 직방류하는 등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닌지?

➡ 현재 폐수 관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부가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지자체는 해당 법적 기준이 준수되도록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환경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폐수 실험 등을 진행하고 우리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의사가 있는지?

➡ 환경부에서 연내 배출 허용 기준 및 생태 독성 관련 고시를 마련 중임. 법적 기준 마련을 모니터링하되, 위원님의 의견대로 도 차원의 자체 시뮬레이션 및 공동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초에 보고하겠음.

○ 현재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자체 처리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 현재 가동 중인 소규모 시설 6개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 중이며, 향후 인허가를 거쳐 운영될 시설에 대해서도 강력한 점검을 계획하고 있음.

**〈 김동구 위원장 〉**

○ 완주 수소단지 지정 이후 예타 대상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 해당 사업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이미 선정되었으며, 국가식품 클러스터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이차전지 인력수급 문제는 현재 원활하게 해결되고 있는지?

➡ 인력양성센터를 통해 인력을 모집 중이며, 완벽한 수치는 아니지만 목표치에 가깝게 인력을 맞춰나가고 있음.

○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IRA 법안 강화 우려와 관련하여 도 차원의 대응 방안과 기업 유치 현황은 어떤지?

➡ 정책 변화에 따른 파급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입장이 명확해지는 대로 위원회에 내용을 즉시 공유하고 대응하겠음.

## Ⅲ 회의 사진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출범(제1차 회의)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제2차 회의)

## 2.2.3. 제3차 회의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5. 02. 21.(금) 10:34~
○ 장 소 : 의회운영・특별위원회 회의실(3층)
○ 참석현황 : 17명
- 특위위원(9) : 김동구 위원장, 권요안 부위원장, 강태창 위원, 김대중 위원, 김만기 위원, 김이재 위원, 나인권 위원, 이병도 위원, 이수진 위원
- 집 행 부(10) : 송금현 환경산림국장, 최지선 생활환경과장,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 조광희 기업유치과장,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 최재길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유응렬 전환산업과장, 배주현 청정에너지수소과장, 윤세영 바이오방위산업과장, 김재천 디지털산업과장
- 출연기관(1) :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 안 건
- 전북 첨단전략산업 지원 추진 관련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Ⅰ 회의 내용

○ 전북 첨단전략산업 지원 추진 관련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 Ⅱ 질의 · 답변내용

**〈 강태창 위원 〉**

○ 현재 추진 중인 완주 수소특화 및 익산 국가클러스터2 예타 준비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 완주 수소특화는 현재 예타를 받고 있는 단계이며 빠르면 2~3개월 내 결론이 예상됨. 익산 국클은 1단계 분양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추진 중으로, 올해 연말 전 예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새만금 이차전지 폐수처리에 있어 타 시도와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은 없고 어민 달래기식의 응급처치 계획만 있는 것 아닌지?

➡ 현재 환경부·새만금청과 상생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음. 공공폐수처리장 활용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환경부에서 장기적으로 R&D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울산 등 타 시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음.

○ 방위산업을 수년째 기치로 내걸었음에도 성과가 미비한데, 집중과 선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 방위산업과 관련해 전북대학교 특화연구실(고탄소 이용 탄소섬유 복합재 개발)이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음. 앞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음.

## 〈 김동구 위원장 〉

○ 이차전지 특화단지 관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협업을 하고 있는지?

➡ 미래첨단산업국에서 고급인력 및 실무인력 양성(배터리아카데미, 부트캠프 등)을 투트랙으로 추진 중이며, 전북테크노파크와 협력하여 이차전지 산업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음.

○ 카이스트 이차전지대학원 설립 추진이 더딘 것 같은데 실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 과기부의 부정적인 기류로 인해 절차가 쉽지 않으나, 전략적으로 카이스트 연구센터 구축을 통해 인력양성까지 확대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선 공약화 등 다양한 대응 방안도 준비하고 있음.

**〈 이수진 위원 〉**

○ 10가지로 분류한 첨단산업의 근거는 무엇이며, 전문 인력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 기존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분류하였으며, 공무원 직렬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도내 대학에 7가지 신산업 분야와 연계된 학과가 다 파악되어 있으며 테크노파크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 관련 학과들을 파악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이 필요할 경우 대학과 협의하여 관련 학과 신설 등을 독려하고 있음. 테크노파크는 기술 지원 및 재교육을 통해 신산업 고도화를 뒷받침하고 있음.

## Ⅲ 회의 사진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 답변(제3차 회의)**

## 2.2.4. 토론회 개최

**토 론 회 개 요**

○ 일　　시 : 2025. 07. 24.(목) 10:00~
○ 장　　소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1층)
○ 참석현황 : 20명 내외
- 특위위원 : 김동구 위원장, 권요안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 김이재 위원, 서난이 위원, 이수진 위원
- 전 북 도 : 최재길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조성연 바이오방위산업과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 전 문 가 : 이경구 군산대 교수(이차전지산업), 강길선 전북대 교수(바이오산업), 장원준 전북대 교수(방위산업)

○ 주　　제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 Ⅰ 토론회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의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조성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추진 전략 모색

○ 산·학·연 전문가의 제언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의 중장기 육성 정책 방향 도출

### Ⅱ 토론회 사진



## 2.2.5. 제4차 회의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6. 02. 06.(금) 16:06~
○ 장 소 : 의회운영·특별위원회 회의실(3층)
○ 참석현황 : 19명
- 특위위원(8) : 김동구 위원장, 권요안 부위원장, 강태창 위원, 김대중 위원, 김이재 위원, 나인권 위원, 서난이 위원, 이병도 위원
- 집 행 부(10) :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 신현영 기업유치과장, 이순택 환경산림국장, 이현옥 생활환경과장, 양선화 미래첨단산업국장, 최재길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이영란 전환산업과장, 배주현 청정에너지수소과장, 조성연 바이오방위산업과장, 박선미 디지털산업과장
- 출연기관(1) :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 안 건
- 전북 첨단전략산업 지원 추진 관련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Ⅰ 회의 내용

○ 전북 첨단전략산업 지원 추진 관련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 Ⅱ 질의 · 답변내용

**〈 권요안 부위원장 〉**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대응과 관련하여, '청와대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전북도의 입장인지, 이는 기업 유치를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 입지에 대한 선택권은 기업에 있다는 의미이며, 기업이 투자를 계획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또한,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이전할 수 있도록 전력·용수 확보, 산단 부지 물색 등 행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음.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위해 정부에 지산지소(지역 생산, 지역 소비) 관련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지?

➡ 정부에도 지산지소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대응 자료에 이러한 노력을 더욱 충실히 담아내도록 하겠음.

## 〈 강태창 위원 〉

○ 전북특별자치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인할 수 있는 확실한 유인책은 무엇인지?

➡ 광활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비해 용수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전력 문제의 경우,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만금에서 지산지소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면 훨씬 유리한 여건을 갖출 수 있다는 논리로 기업들을 설득하고 있음.

## 〈 서난이 위원 〉

○ 미래첨단산업국 핵심사업 중 모빌리티 관련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과거 실증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피지컬AI와 접목된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음. AI 기반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필연적인 상황에서 연구개발은 피지컬AI 생태계 조성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실증·표준화·상용화 과정은 기존 사업과 접목하여 추진할 계획임.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새만금에 올 수 없는 이유로 전력과 용수 문제가 거론되는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이슈브리핑 등으로 언론에 노출하여 도민과 기업들에게 확신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

➡ 지적하신 사항에 적극 공감하며, 전북연구원 등을 활용해 전력·용수 확보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관련 언론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 김동구 위원장 〉**

○ 이차전지 폐수 처리와 관련하여 전 정부와 현 정부 간 정책 변화가 있는지, 서해안 특수성을 고려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 폐수 무방류 정책은 강화되는 추세이며, 이를 위해 해양생물 종을 추가하여 생태계 변화를 정밀 모니터링할 계획임. 또한, 해수부·환경부와 공동으로 연안수질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선례가 있는 포항의 과오와 성공 사례를 적용하며 주민·어업인과 소통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하여 서해안 특성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겠음.

○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새만금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지?

➡ 이차전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미국의 전기차 정책 변수로 인해 일부 투자가 지연되는 면은 있으나, 대다수 기업이 전기차 산업의 대세를 인정하고 있어 투자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부족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 애로해소 창구를 강화하여 적극 해결해 나가겠음.

## Ⅲ 회의 사진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 답변(제4차 회의)**

## 2.2.6. 제5차 회의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6. 06. 10.(수) 14:40 ~

○ 장 소 : 의회운영・특별위원회 회의실(3층)

○ 참석현황 : 11명

- 특위위원(8) : 김동구 위원장, 권요안 부위원장, 강태창 위원, 김대중 위원, 김만기 위원, 김이재 위원, 서난이 위원, 이병도 위원
- 집 행 부(3) :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 양선화 미래첨단산업국장, 이순택 환경산림국장

○ 안 건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Ⅰ 회의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위 활동결과 보고

○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추가・보완사항 의견 개진

### Ⅱ 회의 결과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 Ⅲ 회의 사진



활동결과보고서(안) 채택 및 추가·보완사항 의견 개진

## 2.3. 현 장 활 동

### 2.3.1.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위 선진지 벤치마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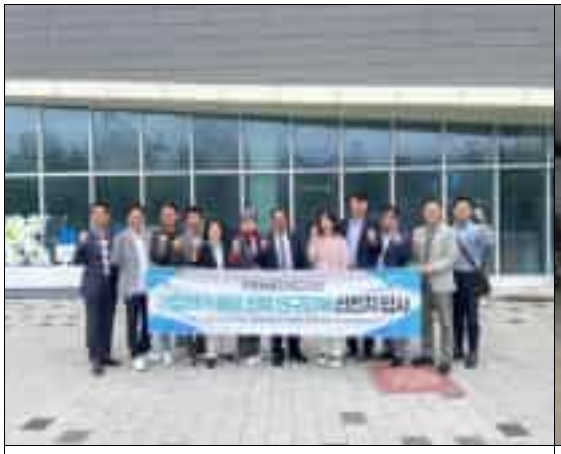
**개 요**

○ 일 시 : 2025. 9. 25.(목) ~ 9. 26.(금) / 1박 2일
○ 장 소 :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옵티팜, 충북배터리산업지원센터
○ 참석현황 : 8명(김동구 위원장, 권요안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 김이재 위원, 나인권 위원, 서난이 위원, 이병도 위원, 이수진 위원)
○ 주요내용 : 타 지자체 첨단전략산업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등

#### Ⅰ 방문 결과

○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현황 청취 및 시설 견학
○ ㈜옵티팜 현황 청취 및 시설 견학
○ 충북배터리산업지원센터 현황 청취 및 시설 견학

#### Ⅱ 방문 사진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현황 청취

| | |
|---|---|
|  |  |
| ㈜옵티팜 현항 청취 | ㈜옵티팜 현항 청취 |
|  |  |
| 충북배터리산업지원센터 | 충북배터리산업지원센터 현황 청취 |

## 2.4. 기고문

### 2.4.1. 전북일보 기고문('25. 09. 16.)



# 청년이 떠나는 전북특별자치도, 이제는 첨단전략산업으로 답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층이 겪는 고용 불안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최근 4년간(2020~2023년) 전북을 떠나는 청년 수는 약 3만 4천여 명으로, 인구대비 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청년이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북은 인구의 급감과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일자리 정책은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양적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수준 향상과 지속 가능한 고용 구조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이차전지 산업, 바이오산업, 방위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면 전북은 떠나는 지역에서 기회를 잡는 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급격한 확대와 맞물려 향후 10년간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전북은 이미 배터리 소재·부품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집적되어 있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역량 강화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 지역 내 연구개발센터와 시험·인증기관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산업은 레드바이오 산업의 핵심 분야인 의약품은 전 세계 시장규모는 1,700조 원 이상으로, 이는 반도체 산업의 2.5배를 넘는 거대 시장이다. 그러나 전북 현실을 보면, 바이오 전문인재의 역외 유출이 심각하고, 바이오 의약품 기업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여 연계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이오특구 지정 시 세제 혜택·규제완화·입지 지원 등 매력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은 전북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인 탄소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고도화가 가능하다. 탄소섬유를 활용한 군수·항공 부품 제조를 통해 첨단 무기 및 드론 분야까지 산업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량화·내구성을 갖춘 차세대 방산제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방산시장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고급 기술인력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대학-지자체 간 연계형 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필수다.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 인턴십, 현장 실습을 강화하고, 채용과 연계되는 '교육-취업-정착'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주거·문화·복지 여건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월세 지원, 청년 주택 공급 확대,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교통 접근성 개선 등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다. 청년들이 “전북에서 사는게 행복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과 생활 인프라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청년 유출은 단순한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니다. 지역 공동체의 존속과 산업의 미래, 나아가 전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첨단전략산업의 메카로 성장하여 청년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산업·인재 혁신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전북이 다시 성장하고, 청년이 웃을 수 있는 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김동구 위원장**

**참 고** 기고문 언론스크랩(2025. 09. 15.)

# 청년 떠나는 전북, 이제 첨단전략산업으로 답해야

기 고



김용구

전북도의회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장

## 2.5. 건의안

### 2.5.1. 국가 차원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개 요**

○ 의 안 명 : 국가 차원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발의의원 : 김동구 의원
○ 의 결 일 : 2025. 09. 05.(금)【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Ⅰ 제안이유

○ 이차전지산업은 모빌리티, 에너지저장장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반이 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미래 국가 경제를 이끌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자 향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분야임.

○ 하지만, 국내 이차전지산업은 기술력과 생산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저가 배터리 공세, 미국의 고율관세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재검토 등과 같은 자국 우선 정책 기조, 전기차 캐즘에 따른 수요 둔화, EU 등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이에 근본적인 산업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각종 국내외 법안·규제에 대응하여 리스크를 줄여 나가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 로드맵 수립과 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건의하기 위함임.

**참 고** 국가 차원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국가 차원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23년 7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새만금과 청주, 포항, 울산 등 4곳을 지정하고 2030년까지 총 3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정부는 지자체, 기업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23.12.13.)을 발표함과 더불어 제도 및 규제 혁신, 특화단지 조기 구축을 위한 인프라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저가 배터리 공세, 미국의 고율관세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자국 우선 정책 기조, 글로벌 전기차 시장 둔화, 원자재가 변동성 확대 등의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핵심 광물과 음극재 등 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대외 불확실성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차세대 기술 개발, 공급망 다변화, 안정적 수요기반 확보를 통한 이차전지 업계의 재도약이 시급한 시점에서 정부는 관련된 개별 법령들의 제·개정으로 그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차전지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별법이 부재하여 국내의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력을 극대화할

구심점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는 핵심원자재법(CRMA), 중국은 5개년 규획 및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규획, 일본은 경제안전보장법으로 자국 및 글로벌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적 강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해법으로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지난 '22년,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을 통해 이차전지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방산 등 전략산업 육성의 초석을 마련하였듯, 이제는 현 글로벌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이라는 국가 차원의 전략 실행을 위한 토대가 필요합니다.

특별법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에서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생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차전지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대선후보 당시 'K배터리 육성전략' 발표를 통해 기술력 확장을 위한 R&D 강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충청-영남-호남권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조성 등 이차전지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공약을 발표한 바, 정부는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이차전지 특별법 제정 및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육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내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제도적 기반을 위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 확보 및 대한민국의 이차전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이차전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생산보조금 도입 등 국가 주도의 전방위적 지원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라.

2025년 9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 2.6. 조례안

### 2.6.1.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개 요**

○ 조 례 명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 발의의원 : 김동구 의원

○ 의 결 일 : 2025. 09. 17.(수)【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Ⅰ 제정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 수요에 맞추어 인재를 양성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 Ⅱ 주요내용

○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첨단산업 지역인재 양성 ·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첨단산업 중소 · 중견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Ⅲ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협　　의 : 이차전지탄소산업과 등과 협의 완료

**참 고**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한 세부추진계획
3.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4.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의 선정기준, 대상, 방법,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5.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첨단산업 인재의 양성·활용) 도지사는 인재의 양성·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인력 수급 조사·분석

2. 첨단산업 분야 인턴제도 운영 등 일경험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

3. 첨단산업 분야 취업정보 제공 및 경력관리에 관한 컨설팅 등 일자리 지원 사업

4. 첨단산업 분야 양성·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 도지사는 일정 규모 이하의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 사내교육 등 자체 인재양성 과정에 대한 지원

2. 전문인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및 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contents

제3장

#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3.1. 특위활동 성과 40

3.2. 특위활동의 아쉬운점 42

3.3. 정책제언 43

3.4. 맺음말 46

# 제3장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 3.1. 특위활동 성과

### 3.1.1. 새만금 중심 대규모 투자유치 기반 확산과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부각

□ 특별위원회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첨단산업 집적과 대규모 투자 흐름을 전북 미래산업의 핵심 기회요인으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음.

○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다수의 관련 기업 투자유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약 9조 원 규모 투자와 연계된 산업생태계 확장 가능성은 전북이 미래차·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상징적 계기로 평가됨.

○ 특히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실현 가능성, 광활한 산업용지, 항만과 물류 접근성, 소재·부품 기업 집적 등의 강점을 갖추고 있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첨단전략산업 입지로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음.

○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투자 흐름이 단순 개별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소재·부품·제조·재활용·연구개발·인력양성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 강조하였음.

### 3.1.2. 미래 신산업 발굴과 지역 특화산업 다변화 논의 확대

□ 특별위원회는 이차전지 중심의 논의를 넘어 항공, 방위, AI, 모빌리티 등 전북의 산업지형을 다변화할 수 있는 미래 신산업 의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었음.

○ 무주 지역 항공산업 투자 논의는 동부권의 새로운 산업기반 형성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전북 첨단산업이 새만금권에만 국한되지 않고 권역별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피지컬AI 관련 사업 선정과 연계하여 AI 기반 모빌리티, 제조혁신, 실증 중심 산업생태계 조성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북이 단순 제조기반을 넘어 지능형 산업전환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 방위산업의 경우에도 탄소소재, 드론, 항공부품, 무인체계 등과 연계한 투자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기존 탄소산업과 첨단 국방기술의 융합을 통해 전북형 방산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3.1.3.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제정으로 첨단전략산업 인력 수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2025년 9월 17일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제5조), 지역인재 양성·활용(제6조), 중소·중견기업 인재확보 지원(제7조),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제8조) 등의 제도적 틀을 완성함.

○ 본 조례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근거법으로 하며, 도지사가 5년 단위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하고, 대학·기업·지자체 간 산·학·연·관 연계형 취업 프로그램(인턴십, 일자리 컨설팅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교육-취업-정착’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체계의 발판을 마련함.

### 3.1.4.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입법 및 지원정책 촉구

□「국가 차원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을 통해 국가 입법을 촉구하였음.

○ 2025년 9월 5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세액공제 직접환급제·생산보조금 도입 등 국가 주도 전방위적 지원 정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함.

○ 중국의 저가 배터리 공세, 미국 IRA 재검토, 전기차 캐즘 등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이차전지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의회 차원의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됨.

○ 공급망 다변화 및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을 촉진하고,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및 생산보조금 도입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국가 지원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였음.

## 3.2. 특위활동의 아쉬운 점

□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산업정책 기반과 제도적 성과는 일정 부분 확보하였으나, 이를 대형 국책사업 확정이나 본격적인 사업 착공, 투자 실행의 가시적 성과로 연결하는 데에는 아직 한계가 있었음.

○ 새만금 대규모 투자, 무주 항공산업 투자, 피지컬AI 사업 선정, 방위산업 투자 기대 등 긍정적 흐름이 형성되고 있으나, 상당 부분은 아직 후속 행정절차, 정부 지원 확보, 기업 투자 확정, 관련 인프라 조성이 병행되어야 하는 단계에 있음.

○ 따라서 향후에는 기대감 차원의 성과를 실제 사업화 성과로 연결하는 후속 점검체계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산업별 논의가 활발하였음에도, 분야별 성과목표와 연차별 실행 전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는 다소 미흡하였음.

○ 이차전지, 항공, AI, 방위산업 등 주요 분야별로 추진주체, 재원 조달, 규제개선, 인력확보, 기업지원 방안 등을 종합한 실행로드맵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산업별로 기대효과는 크지만 실제 사업 추진 속도와 여건은 상이한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선순위 설정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음.

## 3.3. 정 책 제 언

### 3.3.1. 새만금 대규모 투자와 연계한 첨단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

□ 새만금에 집적되고 있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전북 산업구조 혁신의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투자유치 중심 접근을 넘어 전(全)주기 산업생태계 구축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현대차그룹 관련 대규모 투자 흐름을 계기로 미래차, 이차전지, 소재·부품, 재활용, 시험인증, 물류체계까지 연계되는 산업밸류체인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함.

○ 특히 RE100 기반 산업단지, 전력·용수 공급, 항만·물류 인프라, 연구개발 기능을 함께 강화하여 새만금을 국가 첨단전략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도와 의회, 기업, 중앙정부가 연계된 투자지원 협력체계를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3.3.2. 무주 항공산업 및 동부권 신산업 거점화 전략 마련

□ 최근 세계 항공산업은 여객 수요 회복과 함께 항공기 생산, 부품 공급, 정비(MRO), 드론·UAM, 친환경 항공기술 등으로 산업 외연이 확대되고 있으며, 공급망 재편과 기술경쟁 심화에 따라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전략적 산업거점 확보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어, 무주 지역 항공산업 투자 움직임을 계기로 전북 동부권에도 새로운 첨단산업 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

○ 항공·드론·무인기·정비(MRO)·부품산업 등과 연계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수요를 분석하고, 무주를 비롯한 동부권의 입지·공역·연계산업 여건을 반영한 특화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첨단산업이 새만금과 군산권에 집중되는 구조를 보완하고, 권역별 균형성장과 산업분산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음.

○ 향후에는 방위산업, 드론산업, 항공부품산업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포함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이 요구됨.

### 3.3.3. 피지컬AI를 활용한 전북형 산업고도화 추진

□ 최근 인공지능 산업은 단순한 데이터 분석이나 생성형 서비스 중심 단계를 넘어, 로봇, 모빌리티, 제조설비, 물류시스템 등 물리적 실체와 결합하여 실제 산업현장에서 작동하는 이른바 피지컬AI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

○ 피지컬AI가 미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만큼 관련 사업 선정을 계기로 전북은 AI를 독립 산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존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모빌리티, 제조업, 농생명, 물류, 산업안전 등과 피지컬AI를 접목함으로써 실증·표준화·상용화 중심의 산업혁신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데이터, 실증공간, 기업 참여, 연구인력, 규제특례 등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한 AI 전문인력 양성도 병행하여야 함.

○ 전북은 제조·농생명·에너지 분야의 현장성이 강한 지역인 만큼, 피지컬AI를 실제 산업현장 문제 해결형 기술로 정착시키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3.3.4. 방위산업 투자 기대를 실질적 산업기반으로 연결

□ 전북은 탄소산업, 드론, 항공, 기계부품 등 기존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방위산업과의 융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만큼, 현재의 투자 기대를 실질적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연결해야 함.

○ 탄소소재를 활용한 군수·항공 부품, 무인체계, 경량복합소재, 드론 응용산업 등을 중심으로 전북형 방산 소부장 육성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방 관련 연구기관, 기업, 대학, 시험인증 기반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지원구조를 갖추어야 함.

○ 방위산업은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제조업 고도화 효과가 큰 분야인 만큼,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함.

### 3.3.5. 인재·정주·연구개발이 결합된 투자 후속지원 강화

□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유치가 실질적인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자 이후의 정착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함.

○ 대규모 투자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양성, 기업 수요 기반 교육과정, 청년 취업연계 프로그램, 연구개발 인프라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주거, 교통, 문화, 보육 등 정주여건 개선이 병행되어야 기업 종사자와 청년인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음.

○ 결국 첨단산업정책은 투자유치 자체보다, 투자 이후 지역 내에서 일자리・인구・기술・기업 생태계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 할 것임.

## 3.4. 맺 음 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조, RE100 국가산단 조성 논의, AI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 확장 등 급변하는 산업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의회 차원의 정책 플랫폼을 마련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에너지, 방위산업, AI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전반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는 2024년 10월 위원 구성을 기점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활동기간 동안 첨단전략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집행부 정책 점검과 제도 개선,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전북 미래산업 육성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 특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 제정, 국가 차원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정책토론회 및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 등은 전북 첨단

전략산업 정책의 기반을 다지고 향후 후속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됨.

○ 아울러 새만금 중심의 대규모 투자유치 흐름, 무주 항공산업 투자 가능성, 피지컬AI 관련 사업 선정, 방위산업 투자 기대 등은 전북이 기존 산업구조를 넘어 보다 고도화된 첨단산업 생태계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의제로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큼.

○ 다만 첨단전략산업은 단기간 내 성과를 가시화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대규모 재정투자와 기반시설 조성, 전문인력 확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주민수용성 확보 등이 복합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분야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후속 대응이 필요함.

○ 이에 향후에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도의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산업별 중장기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기업 유치에서 인재양성, 연구개발, 정주여건 개선에 이르기까지 연계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이 실질적인 지역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앞으로도 **의회 차원의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북의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이차전지 산업, 동부권 항공산업, 바이오·수소·방위산업, 피지컬AI 기반 산업고도화 등 지역별·산업별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하겠음.**

contents

제4장

# 부 록


4.1. 전북특별자치도 업무보고(1차) 51

4.2. 전북특별자치도 업무보고(2차) 89

4.3. 전북특별자치도 업무보고(3차) 149

4.4. 주요 일간지 보도내용 195

# 4.1. 전북특별자치도 업무보고(1차)

# 4.2. 전북특별자치도 업무보고(2차)

# 4.3. 전북특별자치도 업무보고(3차)

# 4.4. 주요 일간지 보도내용

전북중앙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005면 종합

# 도의회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위 활동 본격

위원장에 김동구 선임…정부 기본계획 발맞춰 산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는 9일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김동구 의원, 부위원장에 권요안 의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이번 10월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안을 의결하면서 특위 활동 계획을 알린 바 있다.

특위 구성은 김동구 위원장, 권요안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태창 위원, 김대중 위원, 김만기 위원, 김이재 위원, 나인권 위원, 서난이 위원, 염영선 위원, 이병도 위원, 이수진 위원 등 11명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전폭적인 육성 흐름과 발맞춰 첨단전략산업 지원·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동구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은 충북, 경북과 함께 '나후벨트'로 주목받고 있고, 모든 경제 지표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2~16위의 하위권을 맴돌하고 있는 전북에게는 절실한 산업"이라며 "개방의 신속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하게 갖춘 새만금을 가지고 있는 전북이 첨단전략산업의 거점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범진기자 jungs@

---

전북일보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최신판 사회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1차 회의 모습 전북도의회 제공

## 전북도의회, 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법 지원 특위 출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법 지원 특별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동구 의원, 부위원장에 권요안 의원을 선임했다.

특위 구성은 김동구 위원장, 권요안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태창 위원, 김대중 위원, 김만기 위원, 김이재 위원, 나인권 위원, 서난이 위원, 염영선 위원, 이병도 위원, 이수진 위원 등 11명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전폭적인 육성 흐름과 발맞춰 첨단전략산업 지원·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동구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은 충북, 경북과 함께 '나후벨트'로 주목받고 있고, 모든 경제 지표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2~16위의 하위권을 맴돌하고 있는 전북에게는 절실한 산업"이라며 "개방의 신속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하게 갖춘 새만금을 가지고 있는 전북이 첨단전략산업의 거점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범호기자

---

全羅日報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003면 종합

## 전북 첨단전략산업 활성화 '지원특위' 출범 활동 돌입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역의 첨단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10일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의원회는 지난 9일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김동구 의원, 부위원장에 권요안 의원을 선임했다.

특위 구성은 김동구 위원장, 권요안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태창 위원, 김대중 위원, 김만기 위원, 김이재 위원, 나인권 위원, 서난이 위원, 염영선 위원, 이병도 위원, 이수진 위원 등 11명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전폭적인 육성 흐름과 발맞춰 첨단전략산업 지원·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홍기자

전주매일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003면 종합

## 도 첨단전략산업지원 특위 업무보고 청취

### 특위 활동계획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2차 회의를 열고 활동 계획안을 채택하고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첨단전략산업 지원 및 육성에 뜻을 모아 국회 활동, 지원조구 건의, 토론회 및 간담회 실시 등 앞으로 특위의 주요 활동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활동 계획안을 확정했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첨단전략산업 지원 및 육성조례 지정을 위한 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특위 김명부 위원장은 "전북이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김동구 위원장은 "전북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역량을 보여주었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새만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전북이 첨단전략산업 등에서 배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크린뉴 기자

金羅日報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003면 종합

## 전북 미래 30년 먹거리 '첨단산업' 육성

### 김동구 도의원 토론회 개최
### 이차전지 등 성장 전략 공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김동구 위원장(군산2)은 2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 첨단전략산업 육성 토론회'를 열고 전북의 미래산업 구조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군산대·전북대 교수진과 전북도 이차전지산업과, 바이오방위산업과 관계자, 전북테크노파크 등이 참석해 이차전지·바이오·방위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공유했다.

김동구 위원장은 "전북의 이차전지, 바이오, 방위산업은 향후 30년을 책임질 핵심 먹거리"라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릴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새만금을 기반으로 한 이차전지 공급망 선점, 바이오의 미래의료 선도, 방산과 탄소산업 연계 성장"의 가능성을 역설했다.

토론회에서는 기술경쟁력 확보, 인력 양성, 융복합 연구개발, 전북형 K-방산 클러스터 조성 등 실질적 전략도 제시됐다. 도의회 특위는 향후 첨단산업 기반 조성과 입지의 현실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홍성조기자

전민일보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003면 종합

## 전북도의회, 첨단전략산업 육성 토론회 개최

### 이차전지·바이오·방위산업 중심 미래 성장 전략 모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구)는 2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차전지·바이오·방위산업 중심의 미래 성장 전략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군산대 이경구 교수, 전북대 강길선·장원준 교수, 전북도청 최재갑 이차전지산업과장과 조성연 바이오방위산업과장,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 등이 참석해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전북형 산업생태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김동구 위원장(군산2)은 "이차전지, 바이오, 방위산업은 전북의 미래 30년을 책임질 핵심산업"이라며, "지금이 이들로 산업 구조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차전지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선점이 가능하며, 바이오산업은 미래 의료기술을 주도할 분야이고, 방위산업은 탄소·부품산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기술경쟁력 강화, 융복합 연구개발 확대, K-방산 클러스터 조성과 인력양성 등 실질적 육성 방안이 제시됐다. 도의회 특위는 향후 관련 정책과 입법 기반 마련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윤홍식기자

全北日報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014면 오피니언

# 청년 떠나는 전북, 이제 첨단전략산업으로 답해야

기고



김동구

전북도의회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층이 겪는 고용 불안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최근 4년간(2020~2023년) 전북을 떠나는 청년 수는 약 3만 4천여 명으로, 연구대비 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청년이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북은 연구의 급감과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일자리 정책은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양적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수준 향상과 지속 가능한 고용 구조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첨단전략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이차전지 산업, 바이오산업, 방위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면 전북은 떠나는 지역에서 기회를 잡는 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급격한 확대와 맞물려 향후 10년간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전북은 이미 에코프로 소재·부품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집적되어 있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역량 강화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 지역 내 연구개발센터와 시험·인증기관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산업은 레드바이오 산업의 핵심 분야인 의약품은 전 세계 시장 규모는 1700조 원 이상으로, 이는 반도체 산업의 2.5배를 넘는 거대 시장이다. 그러나 전북 현실을 보면, 바이오 전문인재의 어의 유출이 심각하고, 바이오 의약품 기업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여 연계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이오특구 지정 시 세제 혜택·규제완화·입지 지원 등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은 전북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인 탄소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고도화가 가능하다. 탄소섬유를 활용한 군수·물공 부품 제조를 통해 첨단 무기 및 드론 분야까지 산업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화와 내구성을 갖춘 차세대 방산제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방산시장 진행력 강화와 동시에 고급 기술인력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청년들이 단일적으로 취업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대학·지자체 간 연계형 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필수다.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 인턴십, 현장 실습을 강화하고, 취업과 연계되는 '교육-취업-정착' 패스트랙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주거·문화·복지 여건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월세 지원, 청년 주택 공급 확대,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교통 접근성 개선 등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다. 청년들이 "전북에서 사는게 행복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과 생활 인프라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청년 유출은 단순한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니다. 지역 공동체의 존속과 산업의 미래, 나아가 전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첨단전략산업의 깃발로 성장하여 청년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산업·경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전북의 다시 성장하고, 청년이 웃을 수 있는 길이다.

全羅日報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003면 종합

# '바이오·배터리' 첨단산업 선진지 견학

## 도의회 산업특위, 오송·둘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구)는 25일 충북 청주 오송·오창 일원의 바이오·배터리 산업 현장을 방문해 벤치마킹했다. 이번 일정은 충북이 선도하는 첨단바이오와 이차전지 산업의 성과와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전북 새만금 국가산단과 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접목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충북 바이오산학융합원을 찾아 기업 지원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과 기업을 둘러봤다.

이어 지난 4월 문을 연 충북배터리산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장비와 현장을 확인하고 주변 기업 현황을 점검했다. 황성조기자

## 전북도민일보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003면 종합

### 도의회, 첨단산업 선진지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구)는 25일 충북 청주 오송읍·오창읍 일원의 바이오 및 배터리산업 기관·기업을 찾아 벤치마킹했다.

이번 방문은 첨단바이오와 이차전지 산업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분야 선진지인 충북의 성과와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향후 전북 새만금 국가산단을 비롯한 도내 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접목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우선, 2012년에 설립된 이후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기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충북 바이오산학융합원을 방문해 오송 글로벌 바이오밸리 내 인프라 및 기업지원 현황 등을 청취한 후 시설을 둘러보고 관련 기업을 방문했다. 이어, 지난 4월에 문을 연 충북배터리산업지원센터를 찾아 시설 현황 및 주변 기업 현황 등을 청취한 후 시설 내 구축된 장비 및 현장을 둘러봤다.

김성아 기자

## 전주매일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003면 종합

### 도의회 첨단전략산업 특위 바이오 산업 선진지 벤처마킹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구)는 25일 충북 청주 오송읍·오창읍 일원의 바이오 및 배터리산업 기관·기업을 찾아 벤치마킹했다.

먼저, 2012년에 설립된 이후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기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충북 바이오산학융합원을 방문해 오송 글로벌 바이오밸리 내 인프라 및 기업지원 현황 등을 청취한 후 시설을 둘러보고 관련 기업을 방문했다.

이어 지난 4월에 문을 연 충북배터리산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시설 현황 및 주변 기업 현황 등을 청취한 후 시설 내 구축된 장비 및 현장을 둘러봤다.

/이민호 기자

## 전북연합신문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002면 종합

### 도의회, 바이오·배터리산업 벤치마킹

#### 충북 바이오산학융합원 등 분 새만금 국가산단 협력 모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구)는 25일 충북 청주 오송읍·오창읍 일원의 바이오 및 배터리산업 기관·기업을 찾아 벤치마킹했다.

이번 방문은 첨단바이오와 이차전지 산업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핵심분야 선진지인 충북의 성과와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향후 전북 새만금 국가산단을 비롯한 도내 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접목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2012년에 설립된 이후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기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충북 바이오산학융합원을 방문해 오송 글로벌 바이오밸리 내 인프라 및 기업지원 현황 등을 청취한 후 시설을 둘러보고 관련 기업을 방문했다.

이어 지난 4월에 문을 연 충북배터리산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시설 현황 및 주변 기업 현황 등을 청취한 후 시설 내 구축된 장비 및 현장을 둘러봤다.

김동구 위원장(군산)은 "대지차세 바이오와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각 지역간 특성들을 연계한 상생협력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느꼈다"며 "전북 역시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구체화하고 충북과 함께 상생하여 국가 균형발 감화해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hohappy@hanmail.com

## 호남日報

2025년 9월 10일 화요일 001면 종합

### "전북,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전략 부실"

#### 도의회 특위 대응 세미나 주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구)가 향후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업계에 나서야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대응 전략의 필요 제문제를 주문했다.

특위는 지난 7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정책무모두터 2025년도 첨단전략산업 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보고에서는 과학업 시 생태계 조성, 팹리스클러스터 구축, 웨이퍼 및 빌리티 시설 등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

위원들은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대응과 관련해 전북도의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업 단체 이전는 본본적 업장을 반영하기보다 정책·물수·산단 부지 등 구체적인 유인책과 실행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들이 이해관계에 나설 만큼 가계가 큰 사안인 만큼 보다 전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김동구 위원장은 "전북 첨단전략산업 현장에서는 인문 인력이 함께 하므로 부족하다"며 "업계이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인력 양성과 일자리 연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성조기자

전북도민일보



# 김동구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김성아 기자 승인 2025.10.07 09:16



김동구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이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동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산업구조 속에서 첨단산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면서, "전북자치도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이차전지 산업, 바이오산업 등 전략산업 분야의 인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첨단산업 인재의 양성·활용하기 위한 ▲첨단산업 인력 수급 조사·분석 ▲인턴제도 운영 등 일경험의 제공 ▲취업정보 제공 및 경력관리에 관한 컨설팅 등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 인력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조례안 제정으로 산·학·연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교육과 현장 경험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산업 현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지역 인재를 확보할 수 있어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 전북자치도가 첨단산업이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구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내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MEMO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 활동결과 보고서